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자치도,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희망 대상자
시군·대학·경진원 등과 일자리 매칭 지원 등 협업

전북특별자치도가 외국의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18일부터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이들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모두가 법무부로부터 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법무부로부터 배정된 지역우수인재 유형 쿼터 703명에 대해 시군·대학·전북특별자치도경제

통상진흥원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재외동포 유형으로 나뉘며,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지역별 허용업종 취업, 학위 취득(또는 일정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해 전북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재외동포 유형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반 이주를 희망 등 전북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시군 담당부서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 학력·거주지·경제활동·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추천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직접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비자(F-2-R/F-4-R)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 및 세부적인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요건 충족 지원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어 교육과 함께 직장생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응접, 지게차 운전, 식품 위생 등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시행

해 나갈 예정이다.

이울러,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센터를 운영해 외국인의 행정·노동·금융 상담 등의 체류지원 서비스 등도 확대해 나가고,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문화유산 답사, 문화 체험 등의 행사 등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나혜수 교육소통협력국장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어, 인구감소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한 외국인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등을 적극 개최해 나가고, 지역 사회와 근무지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국어와 기술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홍보 강화

24일까지 검진 홍보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24일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4일까지 결핵예방주간을 운영하고, 결핵 예방 및 검진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의 날'은 결핵 예방과 퇴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2011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도는 이날을 전후로 매년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라는 주제로 운영되는 이번 결핵 예방주간 홍보는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결핵예방주간에는 도와 14개 시·군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별, 기관별 동시 결핵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이 많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도는 결핵검진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결핵 이동검진(50개소) 및 주민교육(결핵 바로알기, 기침 예절)을 실시하고, 시군은 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결핵예방 캠페인(검진캠페인, 거리행사 등)을 추진한다.

강영석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전국장장은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평상시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핵예방주간을 맞아 결핵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유도해 일상 속 결핵예방 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18일 서부지역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원봉사센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등과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위기 대응·자원봉사 활성화 '맞손'

국립공원공단 서부본부, 전북자본센터 등과 협약 체결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는 18일 서부지역본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원봉사센터,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 정읍시지원봉사센터, 무주군지원봉사센터, 부안군지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영준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장과 (사)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을

비롯해 윤명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장, 안길선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 박철희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이지형 새만금환경생태단지관리단장, 김철수 정읍시지원봉사센터 이사장, 이강우 무주군지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영배 부안군지원봉사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출범 이후, 전북특별자치도내에 위치한 서부권역 3개 사무소, 1개 관리단과 소재 시군 자원봉

사센터와의 전략적 연계를 위해 체결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전·보호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 교류 및 사회공헌 봉사활동 확대, 국립공원 생태관광과 자원봉사활동 연계를 통한 인구소멸 극복 및 지역활력 증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 안내, 홍보 및 참여 유도, 기타 상호발견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협약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 보전·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 추진방법 등에 대해 협의기간 간 상호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산업·농업
악취관리 실태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산업·농공단지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실시해 온 전주제1·2산단 등 10개 산업단지 외에 군단위 소규모 농공단지와 악취민원다발 사업장을 추가해 추진한다.

조사항목은 복합악취, 황화합물류 및 기상 등 14개 항목으로 찾아가는 환경민원차량을 이용해 분석하고 사업장별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제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악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산단 내 악취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개선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김호주 원장은 "연구원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농공단지 주변 주민의 악취 피해를 방지하고 분석결과를 해당 시·군과 공유해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자치도 농어업·농어촌위 농업소득분과, 힘찬 '첫 발'

'23년도 농산시책평가 전국 1위 등 농업소득분과 성과 품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수도 육성계획 2대 목표 중 하나인 농가소득 6천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농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된 농업소득분과를 18일 농업중앙회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4년 주요 핵심 안건으로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 안정 강화, 지속 가능한 농업구조 전환을 위한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체계 개편 방향, 벼 품종 다변화 및 농산물산지유통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해 세부사업 발굴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2023년 농업소득분과 운영을 통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시책 평가 전국 1위(최우수), 시설원에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전북특별자치

도 대표 온라인몰이 전북생생장터 매출액이 2.5배 증가(2022년 78억 → 2023년 190억, 112% 증액)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발굴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국 시·도 최초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시범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신규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소득분과 운영과 함께 '쌀산업육성 특별분과', '밀수농자재 가격상승 대응 특별분과'를 운영해 주요 농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농가경영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도, 고병원성 AI 발생 피해농가 및 업체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원활한 가축 재입식을 위해 가축임식자금 및 영업제한 받은 업체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구입비

를 농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등은 원료 구입비, 운송비 등의 운영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재입식 허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